

養陰明目湯加味方으로 호전된 Tolosa-Hunt 증후군 1예

연경진 · 정현아 · 류현신 · 임승환 · 노석선*

The effect of Yangyeumyungmoktang-Gamibang on a Case of Tolosa-Hunt Syndrome

*Kyoung-jin Yeon · Hyun-a Jeong · Hyeun-sin Rheu · Seung-hwan Lim · Seok-seon Roh**

The Tolosa-Hunt syndrome is a symptom complex with unilateral painful ophthalmoplegia associated with retro-orbital pain, proptosis and III, IV, V-1, VI cranial nerves palsy due to nonspecific granulomatous inflammation in the superior orbital fissure or cavernous sinus.

We experienced a 50 years old female patient with Tolosa-Hunt syndrome who had several clinical signs and symptoms such as ocular pain, headache, sensory loss of face, diplopia, and visual disturbance.

In the point of Differentiation of Syndrome(辨證), this subject was diagnosed as Deficiency of yin in liver and kidney(肝腎陰虛), and was administrated with Yangyeumyungmoktang-Gamibang.

After treatment of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above symptoms were improved.

Key words : Tolosa-Hunt syndrome, Painful ophthalmoplegia, Deficiency of yin in liver and kidney, Yangyeumyungmoktang-Gamibang

서론

《素問·解精微論》에 “夫心者 五臟之傳精也。目者其竅也。華色者其榮也。是以人有德也。則氣和于目。有亡。懷知于色。”라고 하여 사람이 편안하면 氣가 和하여 눈에 나타나며 病과 근심이 있으면 目色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¹⁾. 그래서 몸과 마음의 변화상이 눈에 가장 먼저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과
· 교신저자 : 연경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
인후과학교실
(Tel. 042-229-6756, E-mail : hayear@hanmail.net)

나타나며 현대에는 복잡한 사회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환경오염 및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물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안과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Tolosa-Hunt 증후군은 painful ophthalmoplegia 라고 하며 해면정맥동 또는 상안와열 주위의 비특이성 육아종성 염증에 의하여 이 부위를 통과하는 여러 뇌신경장애를 유발하여 안구 또는 안와 주위의 동통과 함께 일측성 외안근마비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2,3,4)}.

한의학적으로는 瞳神返背에 眼痛이 동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正氣不足 肝腎陰虛 등으로 변증할 수 있으나 그 임상예가 적고 또한 안과 질환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본 질환과 관련된 한의학적인 연구나 증례보고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저자는 두통과 안구통증, 외안근마비로 인한 複視와 視惑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Tolosa-Hunt 증후군 환자를 경험하고 肝腎陰虛로 변증하고 養陰明目湯加味方을 투여하여 증상이 호전되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환 자 : 김 ○ ○, F/50

치료기간 : 2003년 3월 18일 - 2003년 월

18일

진단명 : R/O) Tolosa-Hunt Syndrome

발병일 : 2003년 1월 6일경

발병동기 : 가족과의 不和로 스트레스 받은 뒤

과거력 : 別無

가족력 : 別無

현병력 : 상기 발병일에 우측 안구주위 통증 및 두통과 複視, 視惑, 眼昏 발생하여 2003년 1월 27일 삼성의료원 신경과 및 안과에서 Tolosa-Hunt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03년 3월 18일 내원시까지 스테로이드 치료중 한방치료 위해 본원 외래 내원함.

주소증 : 頭痛, 複視, 視惑, 眼昏, 黑花

부증상 : 顔面麻木感과 顔面浮腫, 不眠, 多夢, 上熱感, 耳鳴, 消化不良, 全身浮腫, 小便不利, 舌苔白膩, 脈沈細緩

검사결과 : 이상소견 없음(Table 1).

치료 및 경과

1) 2003년 3월 18일

증상 : 초진시 주증상으로 頭部의 부분적인 이상 온도감각을 동반하는 頭痛, 안면부의 浮腫과 麻木感, 우측으로 안

Table 1. 양방 검사

검사내용	결과
Brain CT	특이 소견 없음
Brain MRI + Perfusion MRI	left cavernous sinus의 mild bulging이 의심되나 brain에 특이 소견 없음
MR Angiography	R/O dural CCF, left cavernous sinus
Orbit pre- & post-contrast CT	Left cavernous sinus에 early phase에 보이는 dot-like enhancement가 shunt를 시사할 수 있으나 특이소견 없음.
혈액검사	특이 소견 없음
ECG routine	특이 소견 없음

구 外轉시 항상 複視와 視惑 호소함. 관찰시 외전 가능함. 부수적 증상으로 消化不良, 全身浮腫, 小便不利, 不眠과 多夢. 간헐적으로 上熱감이 있으면서 그때마다 손발과 머리에 땀이 남. 최근 耳鳴이 심해진다고 함.舌苔는 白膩하고 脈은 沈細緩함.

침법 : 脾正格(大都 補, 大敦 隱白 瀉) 加 行間 絕骨 瀉

2) 2003년 3월 20일

증상 : 頭痛의 정도가 자각적으로 감소함. 나머지 증상은 아직 변화없음.

침법 : 脾勝格(大敦 隱白 補, 商丘 瀉) 加 地溝 崑崙 補, 行間 絕骨 瀉.

처방 : 養陰明目湯加味方 (Table 2)

3) 2003년 3월 26일

증상 : 頭痛은 간헐적으로만 나타나며 통증의 정도가 감소됨. 複視는 우측 外轉시 두 평행선의 간격이 점점 넓어져 보이는 視惑 증상이 간헐적으로만 나타나고 시야가 어른거림. 안면부의 麻木感 감소됨. 전반적으로 소화상태 양호, 浮腫 소실, 安眠.

침법 : 脾勝格 加 地溝 補, 行間 絕骨 瀉

4) 2003년 4월 2일

증상 : 頭痛과 複視는 소실되었으나 우측 外轉시 視惑과 眼昏은 간헐적으로 나타남. 눈앞에 검은 파리 같은 것이 어른거리는 黑花가 발생. 耳鳴은 변화가 없다고 하나 다른 부수적인 증상은 호전 양상 보임.

침법 : 脾勝格

5) 2003년 4월 8

증상 : 우측 外轉시의 視惑과 眼昏의 빈도가 더 감소됨. 黑花, 耳鳴 지속됨. 식욕이 증가하여 체중이 3Kg정도 늘었으나 전보다 몸이 가볍게 느껴짐.

침법 : 脾勝格 加 太衝 合谷 瀉

6) 2003년 4월 18일

증상 : 複視, 視惑 증상은 소실되었으나 耳鳴은 지속됨.

침법 : 脾正格 加 太衝 絕骨 瀉

처방 : 養陰明目湯加味方 減 熟地黃 加 蔓荊子, 防風, 蒲黃, 柴胡

7) 2003년 6월 15일

증상 : 전화 확인 결과 複視, 視惑, 黑花 등의 주소증 소실됨. 耳鳴도 감소됨.

처방 : 養陰明目湯加味方

Table 2. Herb Medication

투여일	처방명	구성 약물
3월 20일	養陰明目湯加味方	熟地黃 16g, 山藥, 白芍藥, 枸杞子, 甘草 8g, 茯苓, 牡丹皮, 澤瀉, 菊花, 當歸, 酸棗仁, 柏子仁, 何首烏, 丹蔘 각 6g, 砂仁 4g, 細辛 2g.
3월 26일	養陰明目湯加味方	上同
4월 18일	養陰明目湯加味方	熟地黃을 12g으로 減, 蔓荊子, 蒲黃 4g, 防風 3g, 柴胡 2g 加味

고찰

Tolosa-Hunt 증후군은 해면정맥동 또는 상안와열 주위의 비특이성 육아종성 염증에 의하여 이 부위를 통과하는 여러 뇌신경장애(제 III, IV, V-1, VI 뇌신경 마비)를 유발함으로써 안구 및 안와 주위 통증과 외안근 마비가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이다^{2,4)}. 1954년

Tolosa와 1961년 Hunt²⁾ 등이 안와동통 및 외안근의 완전마비, 점진적 시력감퇴 그리고 삼차신경 제 1지 분포부위에 감각이상인 있는 환자들을 보고한 후 1966년 Smith와 Taxdal이 처음으로 Tolosa-Hunt 증후군으로 명명하였다⁴⁾.

임상증상으로 삼차신경 분포 영역에서의 지각감소 및 안동통, 안근마비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안검하수, 안구돌출, 시력감소, 경도의 결막충혈, 안와주위의 부종, 동공이상, 부전실어(dysphasia),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올 수 있다^{5,6)}.

원인과 병인에 대한 명확한 이론은 성립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까지 해면동 동맥류, 매독성 및 결핵성 공막염, 부비동염, 상안와 혈종, 비인두 종양, 뇌하수체 종양, 안와 위종양, 육아종성염, 외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3,4,7)}.

역학상 남녀에서 같은 비율로 나타나며 주로 40대에 호발하나 3세에서 75세까지 광범위하게 보이고 있다. 또 좌우측이 동일한 비율로 침범되나 대부분에서 편측성으로 온다^{2,4)}.

검사상 특이한 임상검사소견은 없으나 급성기에 경도의 백혈구증다 및 호산구증다, ESR 증가 등을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두부 전산화단층촬영술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술 등을 이용한 해면동 및 상안와열의 구조적 이상의 관찰로 진단에 보조적으로 이용되고 있다^{4,7)}.

임상경과에 있어서 Mathew⁸⁾ 등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동통은 15일에서 20일 정도 지속하고 신경학적 증상은 수주 후에 자연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회복되며 steroid 치료를 한 경우에는 24-48시간 내에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다고 하며 24-72시간 내에 극적인 호전이 없으면 이 질환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신적 corticosteroid 치료로 통증은 즉시 소실되지만 안구마비의 치유에는 수일, 수주일, 수개월 걸리며 때로는 결코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⁹⁾.

Tolosa-Hunt 증후군은 동통성 외안근마비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한의학적으로 視惑 및 妄見, 瞳神返背, 眼昏, 黑花, 腦頭風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여^{10,11)} 瞳神返背에 眼痛이 동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唐¹²⁾은 마비성 사시에 해당하는 한의학 명칭으로 目偏視, 神珠將反, 瞳神反背, 墮睛, 目仰視 등을 언급하였다.

瞳神反背의 病因으로서 唐¹²⁾은 正氣不足한 데 風邪가 侵入하거나 脾失健運으로 聚濕生痰한 데에 風邪가 들어와서 筋脈이 失養하여 발생하는 것과 肝腎陰虛로 肝陽上亢하여 風熱이 眼目에 上冲하여 發生하는 것, 그리고 中風이 오래되어 氣虛血滯 脈絡瘀阻하거나 頭部外傷에 의한 경우를 말하였다. 張¹³⁾은 “神珠將反은 目珠不正으로 사람이 目轉하려 해도 不能轉한 것으로 風熱이 項腦에 侵犯되고 筋絡도 아울러 被襲되어 牽縮緊急하여 平偏珠로 不能運轉이 생기고, 만일 血分에 有滯되면 目赤痛하고 失治하면 瞳神返背가 나타난다. 또한 瞳神返背는 神珠將反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으로 原因은 六氣偏勝으로 風熱搏急되어서 眼珠가 斜飜되어 轉換되고 黑睛이 內外로 돌아간다” 하여 瞳神反背의 病因을 風熱로 보았다.

瞳神反背에 의해 유발되는 증상으로서 複視, 錯視 즉 視一爲二症, 視正反斜症은 視惑 및 妄見질환에 속한다. 傅¹⁴⁾는 視一爲二症의 원인을 肝腎不足과 陽邪로 보았는데, “肝腎不足은 膽

과 腎의 眞一한 正氣가 不足한 것이고 陽邪는 눈이 붉고 아픈 것으로 火가 脈絡에 막혀 陰精이 올라오지 못하여 神光을 돕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視正反斜症은 "내부의 陰陽이 치우치게 盛하여 神光이 흩어지려는 징후라 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눈에 黑花가 보이고 元精 元陽이 손상되어 머지않아 맹인이 될 것이라"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神珠將反으로서 視一爲二症 및 視正反斜症 등의 視惑 및 妄見 증상이 겹쳐 있는 것은 肝腎不足에 서도 虛症이 더 심해진 것이라고 사료된다.

傳¹⁴⁾는 左右偏頭風症에서 "겉으로 赤痛이 있고 눈물이 걸끄러운 등의 병은 外症이 생긴 것이고 안으로 눈이 어둡고 어지러운 등의 병은 內症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眼昏과 함께 두통이 겹쳐 있을 때는 外邪가 아닌 내부의 臟腑가 虛弱해진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目は 肝에 속하고 瞳은 腎에 속하는데, 肝腎의 陽分은 萬物의 狀을 分別하므로 肝腎의 陰陽이 和合하여 視覺이 健全하게 되나 病이 나면 陰陽이 偏重된다. 만약 肝腎의 陰이 虛損되면 陽氣가 獨走해서 散溢하므로 眼目이 潤澤하지 못하고 視覺이 바르지 못하며 혹은 一物이 두개로 보이거나 視物이 불완전하고 錯亂된다고 하였다¹⁵⁾.

본 증례의 환자는 주소증으로서 돌발적인 외안근마비로 인해 複視와 두통, 안통과 함께 右眼을 外轉할 때마다 눈앞이 흐릿하게 보이면서 검은 파리같은 것이 날아다니고 평행인 두 줄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져 보인다고 호소하였다.

환자가 평소 腎虛하여 精血不足한데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木土不和에 의해 脾氣가 虛弱해지고 上盛下虛로 風熱이 눈에 上衝하여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어 肝腎陰虛의 病機로 보고 치료하였다.

眼病의 虛症에 補益肝腎하는 治法으로서 滋補肝腎, 滋陰降火, 育陰潛陽, 溫補腎陽 등이

있으나¹⁶⁾ 滋補肝腎을 위주로 하여 處方으로 水濕을 배출하면서 精血을 補하는 六味地黃湯을 기초로 한 養陰明目湯加味方을 선택하였다. 六味 合 四物湯의 의미에 酸棗仁, 柏子仁, 枸杞子, 菊花, 何首烏, 丹蔘, 甘草를 加한 養陰明目湯에 細辛과 砂仁을 加味한 것이다¹⁵⁾.

鍼치료는 脾正格과 脾勝格을 위주로 하였고 증상에 따라 行間 絕骨 瀉 등의 방법을 가미하였다¹⁷⁾.

환자가 발병 2개월 후 내원한 초진시에는 複視나 眼昏 증상보다도 顔面部와 頭部의 異常感覺과 痛症, 浮腫을 더 심하게 호소하였다. 脾正勝格을 위주로 한 침치료로 상기 증상이 바로 호전되었고 複視 및 眼昏 증상도 점차 소실되었다. 한달 경과후 마지막 來院시 複視 및 眼昏은 거의 소실되었으나 耳鳴은 지속되어 養陰明目湯加味方에 熟地黃을 減하고 蔓荊子 防風 蒲黃 柴胡를 加하였다. 2개월 정도 지난 뒤에도 증상은 완전히 소실되고 재발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치료한 결과 유의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통증의 양상과 안근마비의 정도 등을 발병초기부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점과 Tolosa-Hunt 증후군의 초기 임상경과에서의 한방치료의 효과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그러나 steroid 투여만으로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으며 치유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근마비 등의 증상을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으로써 치료기간을 단축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증례의 환자는 肝腎陰虛의 病機를 기본으로 辨證施治하였으나 발병동기가 심한 스트레스였고 향후에도 또다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Tolosa-Hunt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疏肝解鬱로 兼治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결론

대전대학교 부속 대전한방병원에 내원하여 2003년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6차례 통원치료 받은 Tolosa-Hunt 증후군 환자 1 예를 肝腎陰虛로 변증하고 이에 따라 養陰明目湯加味方 투여와 침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을 보인 바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程士德 : 素問注釋匯粹(下冊), 인민위생 출판사, p513, 1982
2. Hunt, W. E. : Tolosa-Hunt Syndrome. One cause of painful ophthalmoplegia. J. Neurosurg., 44: 544-549, 1976
3. 윤병주·백승욱 : Tolosa-Hunt씨 증후군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안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pp171-174, 1981
4. 이인규·정병천·서정규 외 1인 : Tolosa-Hunt 증후군 1례보고, 계명대학교 논문집, 제3권 제1호, pp121-124, 1984
5. 김종성·이상복·명호진 : The Tolosa-Hunt Syndrome. A clinical study of 10 cases. 대한신경과학회지 6:27-32, 1988

6. 유동식·홍영재 : Tolosa-Hunt 증후군 1예, 대한안과학회지, 제27권 제3호, pp131-133, 1986
7. 이충성·이용만·최광주 외 1인 : 해면동육아종에 의한 Tolosa-Hunt 증후군 2예, 대한안과학회지, 제35권 제11호, pp135-141, 1994
8. Mathew, N. T. and Chandy, J. : Painful ophthalmoplegia. J. Neurol. Sci., 11:243-256, 1970
9. 이선숙 김경숙 한영진 외 1인 : 비전형 Tolosa-Hunt Syndrome 1예, 대한통증학회지, 제2권 제2호, pp198-202
10. 노석선 : 안이비인후과학, 일중사, pp173-175, 212-221, 1999
11. 李傳課 : 中醫眼科學, 인민위생출판사, p137, pp721-723, 1999
12. 唐由之, 肖國士 : 中醫眼科全書, 인민위생출판사, pp863-866, 1996
13. 張璐 : 張氏醫通, 상해과학기술출판사, pp142-413, 1990
14. 傅仁宇 : 審視瑤函,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pp120-121, 207, 209-210, 1999
15. 李正來 : 醫易問談 (理法方論), 東洋學術院, pp761-762, 1999
16. 申天浩 : 문답식 오관외과학, 성보사, pp44-45, 1992
17. 李正來 : 醫易問談 後集 下(理法藥論), 東洋學術院, pp587-588, 2001